

치료와 병법의 類比

경희대학교 대학원 한의철학과

정우진*

The analogical reasoning between combat and oriental medicine

dept.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of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Jung Woo-jin

The main purpose of this essay is to shed light on the foundation of the core notion used in oriental medicine. Under the premise that the important notion of oriental medicine has its origin in the culture of the ancient china before B.C.2¹, we will get to the source notion of oriental medicine by retrospectively the analogical thinking used in the course of forming the main notion of oriental medicine. For the source notion being in various domains, we must search so many domains for example the political system including the official system, the economic system and so on. But in this essay, we will limit the domain concerned with combat

Key Words : analogical reasoning, source domain, target domain, source notion

I. 緒論

한의학에 사용되는 개념어는 창조된 것일까. 어떤 논의 체계가 성립될 때마다 새로운 개념어를 만들어야 했다면, 현재 인류에게는 어떤 논의체계도 있지 않을 것이다. 아니, 기존의 개념어와는 온전히 다른 개념어를 다시 만들어야 했다면, 도대체 누가 그런 논의체계를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래서 그런 개념어의 轉用을 전제한다면, 이런 생각을 해도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 것이다. ‘어떤 논의 체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념어의 전용되기 전의 모습을 찾아봄으로써 그 논의체계라는 집을 구성하고 있는 서까래, 구들, 벽돌, 동자기둥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

고 그 재료들이 있는 곳이 바로 한의학의 토대다. 그런데 한의학에 사용되는 개념어들은 마치 집을 구성하는 구들은 광산에서 동자기둥은 산에서 서까래는 폐가에서 오듯이 다양한 경로를 따라 한의학의 영역 안으로 들어 왔을 것이다. 그래서 한의학의 토대를 찾으려면, 다양한 경로를 따라서 역방향으로 소급하는 방식을 써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런 탐구과정을 거쳐 한의학이라는 논의체계에 앞서는 원시개념(source idea)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원시개념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한의학의 개념어로 정착되었으나 그런 전용이 가능하게 된 것은 원시개념과 한의학의 개념 간에 모종의 유사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경로를 총괄하여 은유적 轉用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Sarah Allan은 이런 은유적 전용을 소급하는 탐구방법을 통해, 동양철학의 핵심개념어인 道와 德이 물

* 교신저자 : 정우진, 경희대학교 대학원 한의철학과, 019-463-2067, presolving@naver.com

의 원시개념¹⁾으로부터 왔다고 추정했다. 사라알란의 이런 탐구방법은 George Lakoff와 Mark Johnson이 『삶으로서의 은유: Metaphors We Live By』의 선행 작업에서 보여준 아이디어에 근거하고 있다. 이 책에서 George Lakoff와 Mark Johnson은 개념적 은유가 우리의 사유작용, 경험, 일상적 은유를 구조화하는 개념영역들에 걸친 寫像들(mappings)이라는 증거를 제시했다. G. Lakoff와 M. Johnson의 이런 아이디어는 인지과학의 최근의 성과물에 근거하고 있다. 문화적 토대가 다르다면, 은유의 기제를 거쳐 형성되는 기본개념도 다르다. 예컨대, 사라 알란이 지적한 바와 같이, 다년생 식물을 생물의 모본으로 생각하는 문화권에서는 시간은 일 년을 주기로 하는 순환 싸이클의 이미지로 생각된다. 그러나 동물을 생물의 모델로 생각하는 문화권에서 시간은 시작과 종점이 있는 직선의 이미지로 구현된다. 그러므로 이런 주장은 쿤이 과학 혁명의 구조에서 보여준 통찰과 맥을 같이하는 다음과 같은 하위 주장을 함축한다.

즉 그 이론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하며, 새로운 이론들은 이전에 알려진 현상들을 종종 다를 수 없으며, 그 이론들은 공약 불가능할 수 있으며, 정치, 문화, 그리고 개인의 문제들이 과학에 개입한다. …… 더욱이 인간 개념체계의 한계 때문에 완전히 일반적이고 전체적인 과학이론들은 존재할 수 없다. 예컨대, 일반 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 이론은 양립할 수 없으며, 각 이론에는 방대한 일련의 수렴되는 증거가 있다. …… 가능할 지도 모를 것은 부분 이론들, 즉 우리가 국부적 최적이라고 부를 이론들이며, 서로 양립할 수 없지만 수렴되는 상당한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 대단히 포괄적인(비록 완전히 포괄적이지는 않지만) 이론들이다. 아마 국부적으로 최적인 이론들이 인간의 마음을 이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일 것이다.²⁾

1) Sarah Allan. 공자와 노자 그들은 물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서울. 예문서원. 2001. 사라알란은 이것을 root metaphor라고 했는데, 사라알란의 이 개념어를 刑文은 중국어로 本喻로 옮겼다. 사라알란의 책을 번역한 오만중은 root metaphor를 뿌리 은유라고 옮겼는데 정감가는 표현이다. 사라알란이 말한 뿌리 은유로서의 물을 개념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논의의 결을 어기지 않으므로 원시개념으로 표현한다.

우리는 과학의 문화에 대한 의존성을 지적하는 이런 주장을 한의학에 관한 비과학 운운하는 비난의 한계를 지적하기 위해 사용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 글이 이러한 사유전통을 따른다는 점을 밝히는 정도에서 그치기로 한다. 앞에서 원시개념은 유사성의 토양위에 새겨진 다양한 경로를 거쳐 한의학의 개념으로 쓰이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런 경로는 문화의 외연만큼이나 넓고 다양하다. 때로는 좁은 의미의 문화의 외연을 넘어서기도 한다. 그래서 한의학의 토대를 찾으려는 探索隊는 판료제 등의 정치영역, 수리사업과 상공인을 포함하는 경제영역까지 뒤편에 다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탐구를 통해 우리는 내경의 성립에 참여한 이들의 역사적 궤적이라는 부산물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부산물은 한의학의 사상사에서의 위치를 분명히 해 줄 수 있을 터이지만, 이 글의 내용은 이런 부산물에까지 미치지 않는다. 이 글의 탐색의 범위는 전쟁과 관련된 영역에 한정된다. 이러한 탐구는 이 글의 주된 내용으로서 본론의 위치에 놓일 것이다. 본론의 다른 단락에서는 이런 은유적 전용의 전통과 그 의미를 탐구하겠다. 이 글을 통하여 내경의 주된 추론법의 의미가 보다 명확해지기를 기대한다.

II. 本 論

1. 病 法 에 의 유 비

손자병법의 저자는 뚜렷하지 않다. 일설에는 吳王 闔閭를 섬겼던 孫務의 것이라고도 하고 혹은 그의 후손으로 귀곡선생에게서 동문수학한 龐涓때문에 臙刑에 처하여져서 이름을 孫臙이라 하게 된 이의 작품이라고도 한다. 틀리기 싫어하는 이들은 이 둘의 작품이라고도 한다.³⁾ 이런 이유 때문에 필자의 마음속에

2) George Lakoff, Mark Johnson. 몸의 철학. 서울. 박이정출판사. 2002. pp. 148-149.

3) 사마천은 사기에서 손자병법 13편이 손무에 의해 지어졌다 하였다. 그러나 葉適(1150~1223)이 손무가 좌전에 언급되지 않았음을 근거로 그의 역사적 존재자체에 대해 의심을 제기한 이래로 이 손자병법의 성립과 저자에 관한 문제는

서 손자는 손무와 절름발이 손빈의 이미지 중 어느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다.

손자는 말하기를, “객이 물을 가로질러 오면 물의 안쪽에서 맞지 말라. 물의 반을 건너도록 한 후에 그들을 치면 이롭다. 전투하려는 이는 물에 붙어서 객을 맞아서 안 된다.”⁴⁾ “무릇 객으로서 따라야 하는 도는 깊이 들어가면 전일하게 하여야 하니 그렇게 함으로써 주가 이기지 못하게 된다. 넉넉한 들에서 노략질함에 삼군에 먹을 것이 족하다. 삼가 길러주고 수고롭지 않게 한다.”⁵⁾라고 하였으니 객에는 적진깊이 들어가는 임무를 띠고 있는 선두부대의 이미지가 있다.

현재 우리는 객을 손님의 뜻으로 사용한다. 그런데 주지하듯이 전국시기에는 孟嘗君처럼 사적인 목적을 위해 손님으로서의 객을 양성하는 풍토가 있었다. 전국시기의 객을 양성하는 풍토는 권력 확대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전국시기의 혼란기, 경제적 토대를 잃고 떠돌아다니던 신흥지식인과 무사 그리고 그 외의 기능인들은 자신의 능력을 팔고 싶어 했다. 심지어 개 짖는 소리나 닭울음소리를 내는 하찮

은 능력으로 객이 되기도 했다. 이들의 현세적 욕망은 권력 확대, 궁극적으로는 전국의 통일을 꿈꾸던 이들의 바람과 어울렸다. 그렇기에 자신의 첩을 진시황의 아버지에게 넘긴 일로 인해 호사가들에 의해 진시황의 친부라고도 말해지는 거상 呂不韋는 천하를 통일하고자 했을 때, 우선 빈객과 유사를 모아야 했다.⁶⁾ ‘전국통일의 최대의 공로자 중 한명인 이사는 여불위의 객이었고 몽오 왕의 표공등도 장군이 되었다.’⁷⁾ 무력 통일을 위해 필요한 인체는 주로 무인이나 참모였으므로 당시, 객에는 兵客의 비중이 컸을 것이다. 우리는 사기에서 협객 혹은 자객이라는 표현도 찾을 수 있는데 넓은 의미의 병객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객은 본래 손님이라는 뜻에서 춘추전국시기의 객을 가르는 시대적 환경을 거치면서 병객이라는 개념으로 쓰이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객의 이런 은유적 전용은 의학의 영역에까지 이르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기백이 ‘피부는 맥의 부요. 사기가 피부에 침입하여 주리가 열리면 사기는 락맥에 침입합니다.’⁸⁾ 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그의 머릿속에서 아군의 진지를 넘어서 침입하고 있는 적군 즉 병객의 이미지 외에 다른 무엇을 찾을 수 있겠는가. 신성근은 客을 部曲民과 같은 성격의 집단으로 보았다.

객은 원래 전국시대 말부터 식객, 빈객이라는 형태로 등장했는데, 漢대에 들어 객을 부양하는 풍조가 성행했다 …… 객은 부곡의 사회적 실체와 거의 같은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객과 부곡을 같은 계층으로 보아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⁹⁾

사기에서 部는 주로 전투의 맥락 속에서 쓰인다.

지리한 논쟁의 중심에 있었다. 葉適은 손자방법에 사용된 용어가 전국시기에 보다 가까운 점을 들어 이 소란스러운 책이 전국초기에 저술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견해는 근래에 이르도록 사실로서 받아들여져 왔었다. 특히 梁啓超(1873~1929)는 손자방법이 손빈(378~301)에 의해 지어졌다 하였고 확인하였다. 이 견해는 1972년 마왕퇴의 발굴을 바로 뒤따른 銀雀山발굴에서 현행본 손자방법과 상응하는 방법서 외에 손빈방법이라는 역사적 기록이 전무하였던 책이 발견되면서, 옳지 못하였음이 입증되었다. 더불어 발굴된 소위 손자방법 혹은 (손무방법, 같이 발굴된 손빈방법의 이름을 고려한 호칭)이 현재의 손자방법과 형식과 내용이 상응한다는 사실은 조조가 현행본 손자방법을 과도하게 개작했으므로 현재의 손자방법은 조조방법이라고 해야 한다는 신경질적인 반응과 그로 인해 조조에게 가해지던 대한 비난을 주춤하게 하였다. 현재, 우리에게 있는 정보들을 근거로 판단하건대, Michael Loewe와 Krzysztof Gawoikowski가 말하는 대로 통행본 손자방법의 원 저작은 춘추시기 말기에 정리되었다고 보여진다.(early chinese texts: A Bibliographical guide. Michael Loewe. 1993)이 시기는 이 글에서 다루려고 하는 B.C200~100년경에 성립되었다고 보여지는 내경의 客과 部 등의 개념어의 원 모습을 찾아내기에 적절한 때이다.

4) 客絶水而來，勿迎之于水内，令半濟而擊之，利；欲戰者，無附于水而迎客「孫子兵法·行軍」

5) 凡爲客之道：深入則專，主人不克，掠于饒野，三軍足食，謹養而勿勞，并氣積力，運并計謀，爲不可測「孫子兵法·九地」

6) 段玉裁는 설문해제주의 객에 관한 설명에서 賓을 공경하는 이라 하고 客을 기속시키는 이라 하고 하였는데, 공후백자남은 서로 빈이 되고 후백자남의 신은 서로 객이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나서 두루 말하자면 구분할 수 없다고 하기는 하였으나 빈과 객의 차이는 다만 신분상의 차이로부터 말미암는다고 할 수 있겠다.

7) 呂不韋爲相，封十萬戶，號曰文信侯。招致賓客游士，欲以并天下。李斯爲舍人。蒙驩·王齕·麴公等爲將軍「史記·秦始皇本紀」

8) 岐伯曰 皮者，脈之部也。邪客於皮，則腠理開，開則邪入客於絡脈，絡脈滿則注於經脈，經脈滿則入舍於府藏也。故皮者，有分部，不與而生大病也「素問·皮部論」

9) 신성근. 중국의 부곡, 잊혀진 역사 사라진 인간. 서울. 책세상. 2005. p. 77.

‘항우의 숙부인 항량이 은근히 빈객과 자제들을 병법에 따라 부를 나누었다’-陰以兵法部勒賓客及子弟 했을 때, 그렇고 ‘한왕이 제후의 군대를 부를 기준으로 다섯으로 나누었다’-漢王部五諸侯兵 했을 때도 그렇다. 吳太伯世家에서 ‘마침내 그 부 오천인으로 초나라를 공습했다’-遂以其部五千人襲冒楚고 했을 때, 部는 군대의 편제단위로 쓰이고 있음이 분명하다. 고조 사후에, 유방의 사랑을 받던 첩의 발목과 손목을 자르고 등에 ‘사람 돼지’라고 써서 변소에 기거하게 한, 유방의 처 여태후의 식솔들을 제거하는 대목에는 分部라는 표현이 있는데 일종의 편제단위로서의 부를 나눈다는 의미로 쓰였다.-遂遣人分部悉捕諸呂男女와 夜, 有司分部誅滅. 이장군열전에는 程不識이 ‘부곡과 항오 그리고 영진을 바로잡았다’는 표현이 있다.-程不識正部曲行伍營陳. 그런데 사마정은 索隱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주하면서, 後漢書의 百官志에 실려 있는 내용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부에는 교위 일인씩이 있고, 부의 아래에는 곡이 있는데 곡에는 군후 일인씩을 둔다.’고 하였다.¹⁰⁾ 따라서 우리는 部가 교위를 책임자로 하는 군대 편제단위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漢代 이후 部는 曲과 연칭되어 특정집단이나 구성원 혹은 예속민의 대표를 지칭하는 용어로 쓰였다. 그러나 漢代에 부는 단순히 군대편제단위로 사용되었다.¹¹⁾ 우리는 현행본 손자병법에서 部의 용례를 찾을 수 없다. 그러나 신성근은 1978년 청해성, 대통현, 상손가채에서 발견된 병법과 관련된 목간을 근거로 현행본 손자병법에는 보이지 않는 部가 일종의 군대 편제 단위로 쓰이고 있었음을 밝혔다.

부와 곡이 漢代 군대의 편제단위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더 자세히 보여주는 자료가 1978년 청해성, 대통현, 상손가채에서 발견됐다. 1973년부터 이 지역에서 출토된 목간은 총 400편인데, 그 내용은 주로 군대의 편제, 조련에 관한 법규, 군대의 표식, 군공에 관한 포상제, 처벌규정 등이다. 특히 여기서 발견된 손자병법의 일부는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으로 평가받는다. 그 중 전한 말기의 것으로 추

정되는 115호 한묘에서 다수의 목간이 발견되었고, 그 내용에 부와 곡의 용례가 포함되어 있다.¹²⁾

그렇다면 ‘피부는 맥의 部’라는 표현의 부도 객의 경우와 같이 전쟁이라는 원영역(source domain)으로부터 전용되었다고 생각할 수는 없을까. 이런 추정은 내경에 쓰인 부에 원영역의 의미가 묻어있음을 보임으로써 지지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皮者, 脈之部也’의 部는 맥의 부위 혹은 부분으로서의 피부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한다. 이런 해석은 脈象이 피부를 통해 나타난다는 점을 근거로 맥과 피부와의 생리적 관계를 지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동의보감에서는 내경의 피부론을 인용하고 있는데 편집한 의도를 보아 허준의 이해방식도 일반적인 이해방식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무릇 십이경락은 피부의 부분이다. 그 부중의 알 게 떠 있는 락맥을 봄에 그 색에 푸른빛이 많으면, 痛하고 검은 색이 많으면, 痺하고, 피부는 맥의 부위로 십이경에는 모두 피부에 그에 따르는 부분이 있으니 不與하면 큰 병이 난다. 不與라는 것은 다른 맥과 색이 다른 것이다.¹³⁾

張介賓이나, 馬蒞 등의 주가들은 不與를 不及이나 不愈의 맥락에서 이해했으나 허준은 다른 맥과 색이 다른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여기서도 이 문장을 보는 허준의 관점을 읽을 수가 있다. 그런데 본래 내경에서 ‘皮者, 脈之部也’의 뒤에는 사기의 침입하는 순서가 기술되어 있다.

황제가 물었다. 선생께서 피부의 12부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그 곳에서 병이 생기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백이 말했다. 피부는 맥의 부로 사기가 피부에 침입하면, 주리가 열리고 주리가 열리면, 사기가 락맥에 침입합니다. 락맥이 차면, 경맥으로 들어가고 경맥이 차면, 장부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피부에는 分部가 있어 치유하지 않으면, 큰 병이 납니다.¹⁴⁾

10) 部校尉一人, 部下有曲, 曲有軍候一人(「史記·李將軍列傳」의 史記索隱 註釋中)

11) 신성근. 중국의 부곡, 잊혀진 역사 사라진 인간. 서울. 책세상. 2005. p. 32.

12) 신성근. 중국의 부곡, 잊혀진 역사 사라진 인간. 서울. 책세상. 2005. pp. 34-35.

13) 凡十二經絡者皮之部也. 視其部中浮絡, 其色多青則痛, 多黑則痺, 黃赤則爲熱, 多白則寒, 五色皆見則寒熱也, 絡盛則入客於經, 陽主外, 陰主內. 皮者脉之部也, 十二經皆有部分, 不與而生大病也, 不與者不與他脉同色也. 「東醫寶鑑·外形」

필자는 의학이라는 목표영역(target domain)의 部는 전쟁이라는 원영역(source domain)의 군대편제단위인 部로부터 전용되어 제 일선에서 사기를 막아내는 방어막이라는 의미로 쓰이다가 목표영역의 맥락에 더욱 적합하도록 맥상을 드러내는 부위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추정함으로써 ‘피부는 맥의 부’라는 표현이 굳이 사기의 침입의 순서를 기술한 맥락의 제일 앞에 나오는 점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부는 언제부터 전쟁이라는 원영역을 벗어나 의학에서 사용되기 시작했을까. 사기에 쓰인 부의 용례 중에서 전쟁의 맥락과 직접적 관련 없이 쓰인 경우는 扁鵲倉公列傳에 끼어 있는 淳于意의 醫案에 보이는 두 예가 유일하다. 하나는 ‘신부의 위로 허리 경계선 아래로 사폰쭈¹⁵⁾’이라는 표현에서, 둘은 ‘비기가 오장을 두루 타서 부를 해치고 交한다.’¹⁶⁾라는 표현에서 보인다. 두 경우 모두 군대편제단위와는 직접적 관련 없이 사용되었다. 그런데 비기가 오장을 타서 부를 해치고 交한다했을 때, 부를 치고 들어와 교전한다는 전투의 이미지를 생각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필자는 적어도 漢代에 이르면, 그런 은유적 전용이 아직은 원영역의 의미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로 의학에 받아들여지고 있었다고 추정한다. 내경의 작자가 피부를 맥의 부라 하고, 사기의 침입을 객이라고 했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별동부대를 편성하여 침입하는 적군으로서의 兵客과 이를 막아선 아군으로서의 客, 즉 部의 이미지가 상기되었을 것이다. 침입하는 적-방어군: 邪客-피부.

어쨌든 부가 전쟁의 맥락과 직접적 관련 없이 쓰이는 예를 사기 전체를 통틀어 오로지 淳于意가 남긴 醫案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은 다음의 몇 가지 주장을 함축한다.

1) 부의 첫 번째 목표영역은 의학이었다. 그러므로

14) 帝曰，夫子言皮之十二部，其生病皆何如？皮者，脈之部也。邪客於皮，則腠理開，開則邪入客於絡脈，絡脈滿則注於經脈，經脈滿則入舍於府藏也。故皮者，有分部，不與而生大病也。『素問·皮部論』

15) 腎部上及界要以下者枯四分所。『史記·扁鵲倉公列傳』

16) 脾氣周乘五藏，傷部而交。『史記·扁鵲倉公列傳』

부는 본래 부분이라는 뜻의 일반적인 의미로부터 유래하지 않았다. 즉 부는 본래 전쟁의 원영역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이 주장은 서경, 시경 등의 책에서 부의 용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 부에 관해 허신이 天水지역의 狄部에서 유래한다고 한 점, 도덕경의 什伯에 대해 하상공이 부곡이라고 주한 점 등을 방증의 근거로 들 수 있으나, 더욱 세밀한 문자학적 연구가 수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2) 따라서 전쟁과 의학에 관한 일반적 은유적 전용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이 주장은 (1)번 주장에 함축되어 있다.)

3) 일반적인 은유적 전용이 가능하기 위해 요구되는 전쟁이라는 원영역과 의학이라는 목표영역간의 유사성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혹은 의가들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있었다.(이 주장은 2)번 주장에 함축되어 있다.)

이런 既知의 전투상황이라는 특정영역 즉 원영역과 병리 생리적 기제라는 未知의 다른 영역 즉 목표영역 간에 일어나는 개념어의 전용은 두 영역의 유사성에 기해 누군가의 머릿속에서 비약적으로 일어났을 것이다. 일단 시작된 어떤 개념어의 은유적 전용은 그 사회의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수인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기지의 영역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미지의 영역에 관한 지식을 명료하게 인식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전개과정 속에서 전쟁영역의 더욱 많은 개념어들이 의학의 영역으로 전용되어 들어가지 않았을까.

필자는 虛라는 개념에서도 그런 냄새를 맡는다. 전시에 외부의 침입자는 방어선으로서의 部가 배치된 곳을 피해 허점을 타고 침입하여야 할 것이다. 손자병법에서 허는 ‘거짓’이나 ‘병세가 약하다’는 의미와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거짓은 실패한 것을 허하게, 허한 것을 실패하게 꾸민다는 전략 때문에 추가된 의미이고 허의 기본적인 의미는 실패의 반대로서의 허약이다. 물론 구체적인 맥락에서 두 의미는 상호 중첩되는 경향을 보인다. 예컨대, 「兵勢編」에서 ‘군대를 더하는 것은 마치 숲 둘에 계란을 던지

듯이 해야 한다. 실한 것을 허하게 보이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다.¹⁷⁾라고 했을 때, 그렇고 ‘새가 모인 것은 허하다.’¹⁸⁾라고 할 때도 그런 의미다. 병법의 원시개념 어인 虛는 은유에 의해 외부에서 침입하는 사기가 타고 들어오는 허점이라는 한의학적 개념으로 전용되었을 것이다. 내경의 虛邪라는 표현은 바로 이런 유추를 통해 얻어진 개념이다. ‘허사 적풍을 피함에 때가 있으니 恬憒虛無로 지키면, 진기가 이를 따르고 정신이 안에서 지킬 것이니 병이 어디로부터 따라 들어오겠는가.’¹⁹⁾ 「通評虛實論」에서 기백은 황제가 허실이 무엇인가 묻자, ‘사기가 그득한 것이 실이고 정기를 빼앗긴 것이 허입니다.’²⁰⁾ 라고 하였다. 사기가 들어오는 곳은 정기가 부족한 곳 즉 허한 곳이다. 그래서 내경의 「評熱病論」에서는 말하기를 ‘사기가 들어오는 곳은 그 기가 반드시 허하다.’²¹⁾라고 하였다. 공격-허점: 사기의 침입-허.

사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맥은 몸을 영양하는 혈기를 전하는 통로다. 그렇다면, 이 맥을 지키는 것은 맥의 혈기를 날라 오는 본거지, 즉 臟腑를 지키는 첩경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내경의 작자가 기후의 변화에 따른 병의 발생을 보고, 그 원인에 관해 착상하였을 때, 세상의 모든 것은 특히 물과 바람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는 것은 기라는 점과 그 외인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담아야 한다는 점에 기해서, 邪氣라고 자연스럽게 명명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사기에 대한 생각은 그가 알고 있는 혈맥과 장부 등에 관한 지식이 주는 전체적인 象과 연관되어 전투라는 다른 영역의 象을 떠올리게 했을 것이다. 이런 착상은 다시 의학의 영역으로 되먹임 되었을 것인데 이곳은 일종의 비약이 일어나는 지점이다. 비약이라는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과정을 통해 의학과 전투에 대한 이미지를 함께 떠올렸을 때, 그의 이런 저런 생리와 병리에 관한 개별적 지식은 하나의 그림 아래에 짜임새 있게 연결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때부터

피부를 部라 명하고 사기를 혹은 사기의 침입을 客이라 하였을 것이고 사기가 들어오는 곳을 虛라고 하였을 것이며 이런 방어의 힘을 주는 내부의 기운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衛氣라는 개념어까지도 생각해 내지 않았을까. 물론 위기의 발상에는 내부시스템으로부터 요청되는 다른 필요도 있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내경의 작자에게 사기에 노출된 신체는 전시상태다. 그러므로 자침하는 것은 같은 맥락에서 病과의 전투다.

백고가 말했다. 침자의 대략은 반드시 병중에 자침할 수 있는 것과 아직은 자침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이미 자침할 수 없는 것을 밝게 하는 것입니다. 황제가 말했다. 그것을 살핌에 어떠해야 합니까. 백고가 말했다. 병법에 이르기를 맹렬한 기세를 맞아들이지 말고, 당당한 진을 치지 말라 하였습니다. 자법에는 이르기를 열이 심할 때 자침하지 말고 축축이 땀날 때, 침을 놓지 말며 맥상이 혼란할 때, 자침하지 않으며 병과 맥이 상반될 때, 자침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²²⁾ 兵法-전술의 운용: 鍼法-자침의 방법

침자의 요체라는 뜻의 「刺要論」에서는 말하기를 ‘병에는 터럭과 주리에 있는 것이 있고 피부에 있는 것이 있고, 기육에 있는 것이 있고, 맥에 있는 것이 있고, 근에 있는 것이 있고 골에 있는 것에 있으며, 수에 있는 것도 있다.’ 고 했다.²³⁾ ‘병이 처음에 생겨 날 때, 아주 정미한 것이 반드시 먼저 들어와 피부에 맺힌다.’²⁴⁾ 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제, 위에서 말한 전쟁으로부터 비롯된 은유적 전용을 확장하여 다음과 같이 형식화 할 수 있겠다. 신체-사기(客: 賊)-사기가 침입하게 되는 皮膚(部)-주리의 허한 곳-혈맥-장부-자침의 용법: 전투-적군(客: 賊)-군대편제 단위(部)-병세의 허한 곳(虛)-전시 식량을 날랐던 길-도성-전술의 운용

병법에 있어 전술을 운용하는 것과 자침시 침의

17) 兵之所加, 如以礮投卵者, 虛實是也. 「孫子兵法·兵勢」
 18) 鳥集者, 虛也 「孫子兵法·兵勢」
 19) 虛邪賊風避之有時, 恬憒虛無, 眞氣從之, 精神內守, 病安從來. 「素問·上古天真論」
 20) 岐伯對曰 邪氣盛則實, 精氣奪則虛 「素問·通評虛實論」
 21) 邪之所湊, 其氣必虛 「素問·評熱病論」

22) 黃帝曰 候之奈何? 伯高曰兵法曰 無迎逢逢之氣, 無擊堂堂之陳, 刺法曰 無刺熇熇之熱, 無刺漉漉之汗, 無刺渾渾之脈, 無刺病與脈相逆者. 「素問·逆順」
 23) 病有在毫毛腠理者, 有在皮膚者, 有在肌肉者, 有在脈者, 有在筋者, 有在骨者, 有在髓者. 「素問·刺要論」
 24) 病之始生也, 極微極精, 必先入結於皮膚 「素問·湯液醪醴論」

운용은 서로 무관하다. 또한 상식적인 수준에서 적군의 침입과 사기의 침입간에 무슨 관련이 있던 말인가. 그러므로 이런 은유적 전용은 修辭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전쟁으로부터의 은유적 전용을 통해 새로운 깨달음에 이르고 이런 비약적 깨달음의 결과로 개별적인 거의 무의미했던 지식이 통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유적 전용이 단순히 이해의 편의와 미적 효과만을 고려한 修辭일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은유적 전용이 건전한 은유적 전용인 것은 아니다. 때로 잘못된 은유적 전용은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건전한 은유적 전용은 원영역으로부터 전용되는 원개념이 목표영역의 목표개념과 구조적으로 같은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예컨대, 장수-전쟁-병기라는 단순한 구조물에서 전쟁은 의사-치료-약이라는 구조물의 치료의 자리로 전용될 수는 있으나 약의 위치로 전용될 수는 없다. 그런데 은유적 전용의 유용성 중 하나인 새로운 깨달음은 장수-전쟁-병기라는 구조물에 근거해서 의사-()-약이라는 구조물의 ()를 채우는 추리의 효과다. 우리는 내경의 작자들이 은유적 전용의 이러한 특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내경 안에서 찾을 수 있다.

황제가 한가로이 앉아 있다가 뇌공을 불러 말했다. “그대는 術을 받고 書를 암송하는 자이니 만약 능히 여러 학문을 두로 보아 비유하는데 까지 이르러 도리를 통합했다면, 나를 위하여 그대가 능한 것을 말해주시게.” 뇌공이 말했다. “제가 백경상하편의 수많은 내용을 읽었으나 다른 것을 구분하고 (같은 것을) 비유함에 만전을 기하지 못하겠습니다. 또 어찌 족히 밝혀내겠습니까.”²⁵⁾

각 영역의 개별적 도리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개별적 도리를 아우를 수 있는 지식의 확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황제가 類類를 말했다 때, 그것의 주된 의미는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근거로 미지의 지식을 획득한다는 것이다. 뇌공은 답하는 중에 다른

것을 구분한다는 別異와 대응하여 類類를 말했다니 비유의 의미는 ‘같은 것을 한데 묶는다.’는 의미일 것이다. 같은 것은 아마도 유사하다는 의미이고 묶는다는 것은 어떤 특성을 공유함을 추정하여 같은 범주에 넣을 수 있다는 뜻일 터이다. 그러므로 ‘같은 것을 한데 묶는다’는 것은 유사한 것 즉 동류인 A와 B사이에서, A의 특성 a를 미루어 나가면 B도 a라는 특성을 공유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 A와 B의 유사성에 근거해서, A의 특성 a를 미루어 나가 B에서 a라는 특성을 찾아내는 추리형식을 유비추리(analogical reasoning)라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경의 類類를 유비추리와 같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 내경의 개념어가 원영역의 원개념(source notion)으로부터 유래한 것과 마찬가지로 내경의 중요한 추리형식인 비유 즉 유비추리도 출생의 계보가 있을 것이다. 중국의 사유전통 속에서 유비의 계보를 말하자면, 논어나 주역으로부터 단서를 찾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맹자 순자 등의 類類 개념을 따라 동중서에까지 이르는 논의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작업은 다른 보다 넓은 지면을 필요로 하기에 우선은 논어에서 보이는 실마리만을 당겨보기로 하자. 중국의 사유에 관한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 공자의 언행록인 논어를 빼 놓을 수 없다.

2. 유비의 전통

昭公이 내린 잉어를 먹고 낳았다고 해서 鯉라는 이름을 갖게 된 공자의 첫째 아들 伯魚는 50세가 되어 공자보다 먼저 죽었다. 『論語』에는 伯魚가 공자의 자식이라 하여 자신이 무언가 특별한 가르침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진강이라는 이의 질의에 대해 답한 내용이 실려 있다.

진강이 백어에게 “그대는 아버지로부터 남달리 가르침을 받은 것이 있는가?”하고 묻자, 백어가 대답하기를 “없습니다.” 하루는 뜨락에 홀로 서 계실 적에, 제가 종종걸음으로 지나갔더니 ‘너는 시(詩)를 배웠느냐?’고 물으시기에, ‘아직 못 배웠습니다.’라고 아뢰었습니다. 그러자 ‘시를 배우지 못했으면 말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다.’하시기에 물러나 시를 배웠습니다. 라고 하였다.²⁶⁾

25) 黃帝燕坐, 召雷公而問之曰 汝受術誦書者, 若能覽觀雜學, 及於比類, 通合道理, 爲余言子所長. 雷公曰 臣請誦脈經上下篇, 甚衆多矣, 別異比類, 猶未能以十全, 又安足以明之. 「素問·示從容論」

『論語』전편을 통하여 학의 대상으로서 공자가 언급한 것은 이 문장에서 보이는 詩와 禮뿐이다. 易도 학의 대상으로 언급되긴 하였다 하나, 그 문장은 易이 亦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근거로 삼기에는 꺼림직하다. 공자의 문도들도 시를 주된 학의 대상으로 삼았을 것이다. 시를 학습하는 목적은 예문에서 밝힌 대로 말을 하기 위해서이다.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적절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주된 의미일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주장을 하거나, 새로운 지지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는 것도 그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므로 시학습의 목표는 지식의 깨달음을 통한 확장과 통합적 이해라는 은유적 전용의 효과와 부합한다. 공자의 언행록인 논어에는 예문보다는 조금 더 시의 본질에 가까운 내용을 다루는 곳이 있다. 子貢은 공자의 제자 중에서는 가장 현실감각이 뛰어난 인물로 언변에 능했다. 그래서 공자는 魯나라에 전쟁의 기운이 닥쳤을 때, 자공의 구변을 써서 그 위험을 피해나갔다고 사마천은 써 두었다.

1) 자공이 말했다. 가난하되 아첨하지 않고 부유하되 교만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공자가 말했다. 괜찮다. 그러나 가난하되 즐거워하고 부유하되 예를 좋아하는 이만 못하다. 자공이 말했다. 시에 이르기를 마치 자른 후에 갈고 쥌 후에 간 듯하다는 것이 이것을 이르는 것입니까. 공자가 말했다. 사야 비로소 너와 더불어 시에 관하여 이야기 할 수 있게 되었구나. 지나간 것을 말해주니 올 것을 아는구나.²⁷⁾

공자는 자공이 말한 수준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수준을 제시한다. 그러자 자공은 시의 위풍에 실려 있는 淇奥이라는 시를 인용하여 그 뜻과 대응시켰다. 淇奥이라는 시는 毛씨의 소서에 따르면, 무공의 덕을 찬미한 시라 한다. 주희의 집전에서 같은 맥락으로 말하고 있으니, 이 시를 무공이 계속해서 정진하는

모습을 찬미한 시라고 보는 관점은 무난하다. 배경은 다르나 같은 점이 있는데 자공은 이 의미의 유사성을 따라 공자의 주장을 지지하는 근거로 사용하였다. 그래서 자공이 위와 같이 말했다 때, 그의 머릿속에는 다음과 같은 창발적인 연상 작용이 있지 않았을까. 貧而無諂, 富而無驕, 未若貧而樂, 富而好禮者也→이 문장의 의미인 계속적인 도야의 필요성→언젠가 읽었던 계속적인 도야의 함의를 지니고 있는 시→그 시의 표현인 如切如磋, 如琢如磨. 논의를 더 하고 싶지만 우선은 다른 예를 하나 더 보도록 한다.

공자사후 제자는 몇 개의 분파로 나뉘게 되었다. 그 중 가장 주목되는 학파는 魏文侯의 스승을 지냈던 子夏학파다. 좀 편협한데가 있어보였던 자하도 자공과 마찬가지로의 칭찬을 듣는다. 맥락도 유사하다.

2) 자하가 물었다. “이쁜 웃음에 귀여운 보조개, 예쁜 눈에 검은 눈동자, 흰색으로 채색을 하는 구나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공자가 말했다. “채색은 바탕을 흰색으로 하는 것 뒤의 일이라는 뜻이다.” 말했다. “예가 (본바탕을 준비하는 것보다)뒤라는 얘기인가요.” 공자가 말했다. “나를 일으켜 주는 이는 상이다. 비로소 시에 관해 말할 수 있게 되었구나.”²⁸⁾

이 예는 앞의 예보다 이 글의 흐름에 더 적절하다. 중간에 공자의 힌트가 있기는 하였으나, 자하는 시를 매개로 하여 지식을 확장시켰다. 그래서 우리는 자하의 머릿속에서 다음과 같은 연상이 일어났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 巧笑倩兮, 美目盼兮, 素以爲絢兮→繪事後素→禮後(質). 앞의 두 예문에서 자공과 자하에 의해 행해진 추리는 다음과 같이 형식화 될 수 있다.

1) 君子-貧而無諂, 富而無驕, 未若貧而樂, 富而好禮者也; 匠人-如切如磋, 如琢如磨.

2) 外貌와 그림의 과정-巧笑倩兮, 美目盼兮, 素以爲絢兮-(繪事後素): 人품의 도야-禮後

既知之 영역으로부터 未知의 다른 영역으로 넘어 들어가는 비약적인 추리를 통해 자공과 자하는 새로

26) 陳亢問於伯魚曰: 子亦有異聞乎? 對曰: 未也. 嘗獨立, 鯉趨而過庭. 曰: 學詩乎? 對曰: 未也. 不學詩, 無以言. 鯉退而學詩. 他日又獨立, 鯉趨而過庭. 曰: 學禮乎? 對曰: 未也. 不學禮, 無以立. 鯉退而學禮. 聞斯二者. 陳亢退而喜曰: 問一得三, 聞詩, 聞禮, 又聞君子之遠其子也. 『論語·季氏』

27) 子貢曰: 貧而無諂, 富而無驕, 何如? 子曰: 可也. 未若貧而樂, 富而好禮者也. 子貢曰: 詩云: 如切如磋, 如琢如磨. 其斯之謂與? 子曰: 賜也, 始可與言詩已矣! 告諸往而知來者. 『論語·學而』

28) 子夏問曰: 巧笑倩兮, 美目盼兮, 素以爲絢兮. 何謂也? 子曰: 繪事後素. 曰: 禮後乎? 子曰: 起予者商也! 始可與言詩已矣! 『論語·八佾』

운 깨달음에 이르거나 혹은 자신들이 그저 막연히 느끼고 있었던 어떤 생각을 구체화할 수 있게 된다. 적절한 유비추리를 통해 얻은 앎의 확장에 대한 스승의 칭찬은 아주 적극적이고 조금은 과장되어서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해 주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起자가 앎의 확장을 의미하는 ‘깨달음’을 뜻하는 대목임을 알게 된다.

논어에서 보이는 이런 유비의 전통은 다양하게 분기되었다가 맹자의 성선설에 관한 논쟁을 경유하여 거듭 분기하였는데 그 한 지류는 순자에까지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줄기 중 하나는 象과 관련된 다른 논의의 흐름과 어울리면서 比類取象이라는 한의학의 고유한 인식론을 태동시켰을 것이다.

III. 結 論

어떤 논의체계의 기본적 개념어가 은유의 기제를 거쳐 형성되었다는 전제하에, 우리는 은유적 전용을 소급함으로써 그 논의체계의 문화적 토대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제는 과학의 문화적 특성을 함축함으로써 한의학의 비과학성에 관한 논의에 참여할 길을 열어 놓았으나 이 글은 그 길을 따르지 않았다. 한의학의 문화적 토대를 발굴함으로써 우리는 보다 깊이 한학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전쟁과 관련된 영역을 탐구함으로써 部, 客, 虛, 刺針法 등의 개념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안했다. 이런 은유적 전용은 새로운 앎에 이르게 하고 산별적인 지식을 통합시키는 기능을 한다. 우리는 내경에서 이런 기능을 하는 比類 곧 유비추리라는 추론의 방식을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중국 인문사상의 원천인 논어에서도 유비추리의 유용성이 이해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암시하는데 그치긴 하였으나 시경의 텍스트로서의 위치도 유비의 전통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중국사유전통속에서 유비사유의 전통을 언급한다면, 논의의 절정은 동중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논어나 주역으로부터 유비적 사유의 단서를 찾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맹자 순자 등의 類개념을 따라

동중서에까지 이르는 논의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했듯이 다른 지면이 필요하다. 치료와 방법의 유비가 가능한 것은 두 영역 간에 어떤 특성이 공유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특성은 공수의 세력다툼이다. 그런 세력다툼은 직관적이고 누구나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이다. 그런데 그런 느낌은 분석되지 않는 하나의 象이다. 그러므로 유비를 한다는 것은 어떤 상을 밀어나간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상이라는 것은 현실의 그대로의 반영은 아니나 형이상학적인 추상과도 달라서 현실의 생동감을 잃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자하가 그림을 그리는 과정으로부터 본 상을 근거로 하여 예가 질보다 뒤의 일임을 깨쳤을 때, 우리는 그의 마음속에서 어떤 생동하는 구체적 이미지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유비적 사유가 횡행했던 漢代에 象數學이 발전한 것은 그러므로 우연이 아니다. 유비추리는 은유와 환유가 우리 사고바닥에 본래부터 있던 것처럼 본유적 사유방식이다. 그리고 상을 미루어나가는 직관적 통찰력이 보여주는 것처럼 새로운 앎으로의 확장을 수반하는 연상적 통찰력이다. 말의 흐르는 곁에 따르자면, 이제 상과 수에 관한 논의로 넘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더 이상 논하지 못한다.

參考文獻

「단행본」

1. 신성근. 중국의 부곡, 잊혀진 역사 사라진 인간. 서울. 책세상. 2005.
2. George Lakoff, Mark Johnson. 몸의 철학. 서울. 박이정 출판사. 2002.
3. Sarah Allan. 공자와 노자 그들은 물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서울. 예문서원. 2001.
4. David L. Hall, Roger T. Ames. Anticipating China.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5.
5. Michael Loewe. early chinese texts: A Bibliographical guide. The society for the study of early china. 1993.
6. 許浚. 東醫寶鑑. 서울. 남산당. 2004.

7. 미상. 論語(經書).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0.
8. 司馬遷. 史記. 서울. 경인문화사. 1973.
9. 段玉裁. 說文解字注. 上海古籍出版社. 上海. 2000.
10. 姜國柱. 孫子兵法精粹解讀. 中華書局. 北京. 2002.
11. 程士德 主編. 素問注釋匯粹.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2.

K C I